

고품질 유용미생물 공급 '최선'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무주군, 무풍·안성 유용미생물 공급분소 환경 개선... 농가 편의 증진 등 기대

무주군은 무풍·안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에 비기립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 저온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하는 등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여름철 햇빛과 비, 바람, 먼지 등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오염원의 비산을 막아 유용미생물이 변질되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미생물 활력 강화와 효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저온보관을 통해 미생물 활성화 기간을 길게 유지함으로써 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영농철 농사일 때문에 미생물배양센터까지 미생물을 가져다 오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무풍·안성 분소를 운영 중"이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질 좋은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가들은 농자재 값



무주군 농업미생물 공급분소.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편의성 면에서도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미생물은 농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성 증대 및 가축 면역력 강화, 축사 내 분뇨 악취를 줄이는데 효과가 탁월한 것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무주군에서는 2010년부터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 EM을 비롯한 광합성균과 유산균, 바실러스 등 7종의 미생물을 생산해 관내 경종, 축산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6톤을 공급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환경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방문 요청

용담댐 제 관리 찾기를 표방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적극 나섰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4일 환경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 예산안에 진안군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전 군수는 먼저 환경부 물이용기회과 이점용 과장을 만나 전북도민과 충청도민 등 130여만명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 물이 정작 진안군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진안군 전 지역이 용담호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전 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에 대해 국비 5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최명규 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자연재해 위해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진안군 갈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총사업비 160억원 중 시설계획비 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보훈처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보훈단체협력관 나치순 국장을 만나고, 진안군 보훈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 희망찬 미래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진안군은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실시

무주군이 '안전한 무주, 안심생활, 안도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무주군은 내달 16일까지 관내 시설 100곳을 점검한다.

24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교, 무주어린이집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점검은 아무리 자주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해 재로화를 향한 우리 군의 의지와 실천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곳곳을 살피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은 민·관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는 범국가적 예방활동이다.

무주군은 남은 점검기간 각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찾아 즉시 조치하는 한편, 중대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이용금지 조치 후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안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내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확인을 독려하는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나서

무주군이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준비에 돌입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4일 지자체 합동평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성지표 담당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자체 합동평가 17개 정성지표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 개별 코칭 형태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강사는 이 자리에서 △정성지표별 1대1 지표 작성 방향 설정 및 개선, △우수사례 발굴 기준과 예비사례 선정 관리 전략, △우수사례 작성 시 착안점 등을 제시했다. 또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분석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정성지표 담당은 기획실 청년정책팀과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을 비롯한 9개부서 15팀으로, △임신·출산 안심환경조성 우수사례와 디지털 전환 우수사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 우수사례 등 17개 사례를 발굴한 상태다.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수사례를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분석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TV조선 선정 행정혁신경영부문

전춘성 진안군수가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됐다.

진안군은 한 해 동안 기업과 기관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각 분야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하고 있는 TV조선이 선정한 올해 행정혁신경영부문에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전춘성 진안군수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선정식은 올해 수상자들의 우수 경영 및 활동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 성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친 점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결과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과 산악관광 특구조성사업이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고, 치매 노인 통합돌봄을 위해 진안군이 개발



전춘성 진안군수가 '202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됐다.

보급중인 AI배양 돌봄인형은 전라북도 모든 시군에 선진사례로 확산되는 성과를 이뤘다.

농업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은 진안고원물과 생방송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행정을 펼쳐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경제 육성, 명품 휴양관광, 인재 육성, 맞춤형 복지, 청장년 정책 등 군정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국유림관리소, 농림지 돌발해충 방제사업 추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방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지 돌발해충은 외래해충으로 5월경 부화를 시작해 7~8월경 성충이 나타나고 3개월 동안 나무수액을 빨아먹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다.

농림지 돌발해충은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약충과 성충이 나무를 흡즙하여 수해를 악화시켜 배설물로 인한 응을을 피해를 입혀 더 많은 농작물의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가 예상되는 등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우화되는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상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했으며, 최한주 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 허브로 개발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장정복 의원의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의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의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의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의결되면서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회를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이 승인되면서,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6월 8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훈)를 통해 관내 현안 사업장 12개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